

# 캘리포니아 최악 산불...인명피해 속출

최소 17명 사망·100여명 부상  
워싱턴 D.C. 면적 3배 불타  
7개월째 가뭄·강풍 피해 확산

‘와인의 메카’ 나파밸리로 유명한 나파 카운티를 비롯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역에 동시 다발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사망했다.

지난 8일 밤 10시경(이하 현지시간) 나파밸리 인근 칼리스토가에서 시작된 산불은 9일 오후 5시 현재 17개의 산불로 갈라지면서 소노마 카운티에서 7명, 나파 카운티에서 2명,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3명 등이 숨졌다고 캘리포니아 삼림·산불 보호국의 캔 피플롯 국장은 밝혔다.

100여 명의 주민이 다쳤고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했으며, 건물 1500여 채가 전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노마 카운티에서만 100건가량의 실종 신고도 접수됐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는 수일 후에는 이들 수치가 급증할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목격자들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최대 시속 130km의 강풍을 타고 불씨가 옮겨 가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노마, 나파, 유바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CNN은 이번 산불이 3초만에 축구장 하나를 집어삼킬 정도로 빠른 속도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수 백 명의 소방관이 4000~5000 에이커에 달하는 산불에 맞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의 시속 50마일(80km)의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면서



전쟁터 같은 화재 현장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를 덮친 대형산불로 17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주택, 건물 1500여 채가 소실한 가운데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타로사 시에서 주민들이 불에 타 찢터져 버린 집에서 서로 껴안고 있다. /연합뉴스

전황에 어려움을 겪었다.

10일 새벽부터 화재는 진정이 됐지만, 아직도 산불은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대 피해 지역인 산타로사 인근의 오크크론트에서는 산불이 주거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피플롯 국장은 “현재는 진화작업보다 생명 구조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지만, 북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난 3월 이후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아 매우 건조한 상태여서 자연 발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립기상청은 이날 북 캘리포니아 지역 주요 카운티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강풍과 낮은 습도, 따뜻한 기온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현지 언론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한밤중에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30m가 넘는 화마로 돌변해 들판과 고속도로를 뛰어넘어 삼시간에 북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퍼졌다”면서 “주민들은 자동차 열쇠와 애완동물만을 챙겨 차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현대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11만9000 에이커 이상의 임야와 주거지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는 워싱턴 D.C.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 대부분은 태양을 가릴 정도의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기침을 유발하는 연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북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요 도로인 101고속도로 등 일부 주요 도로가 폐쇄됐다. 주 재난 당국은 방위군 병력 투입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 필리핀 IS, 한국 선박 납치 ‘호시탐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필리핀 반군이 한국 선박 납치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 관계 당국은 무장단체 아부사야프가 필리핀 남부 해역에서 한국 선박 납치를 기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아부사야프는 선박 납치를 위해 필리핀 남부 술루 지역에 푸른색 고속보트를 준비해두고 인근 타위타위 해역과 말레이시아 사바 해안을 운항하는 한국 선박을 1차 목표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부사야프는 한국 선박 납치가 용이하지 않으면 필리핀 남부 지역에 있는 한국 인이나 다른 외국인의 납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당국에 한국 선박

과 한국인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술루와 타위타위, 바실란 섬 지역은 아부사야프가 외국 선박이나 외국인 납치를 일삼는 곳이다.

한국 정부는 이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아부사야프는 작년 10월 필리핀 남부와 가까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인근에서 한국 국적 화물선 동방자이언트호를 습격, 한국인 선장 박모 씨와 필리핀 국적 선원 1명을 납치했다가 3개월여 만에 풀어줬다.

지난 2015년 1월에는 필리핀 남부 삼보양가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한 70대 한국인이 아부사야프에 의해 납치돼 10개월간 억류된 끝에 송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 태국 푸켓·파타야 해변서 흡연하면 징역형

다음 달부터 푸켓과 파타야 등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태국의 유명 해변 휴양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바트(약 34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태국 해양해변자원국은 다음 달부터 전국 20개 인기 해변관광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금연 지역으로 지정되는 해변관광지는 푸켓의 빠통, 푸켓 인근 카이눅, 카이나이섬, 파타야, 사무이 섬의 보트, 후아힌의 까오 따까업, 남동부 라용주(州)의 매 핼, 찐타부리주의 램 싱, 촌부리주의 방 샌과 줌티엔, 팻차부리주 차-안, 타오 섬의 하드 사이 리 등이다. /연합뉴스

이들 지역에는 흡연구역이 설치되고 그 외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해양공원법을 적용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바트(약 340만원)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이 인기 해변관광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모래밭에 쌓이는 담배꽂초 때문이다. 안다만 해안자원개발센터가 최근 푸켓의 빠통 해변 일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1㎡당 0.76개의 버려진 담배꽂초가 발견됐다.

빠통 해변 길이가 2.5km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해변에 10만 개가 넘는 담배꽂초가 버려졌다는 뜻이다.

해변에서 버려진 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꽂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독립선언 유예, 말도 안된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카를레스 푸지데론 수반은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선언절차를 몇 주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독립 지지정당인 급진좌파 민중연합후보당(CUP)의 아나 가브리엘(사진) 대표는 “카탈루냐 공화국을 선포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푸지데론 수반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 카탈루냐, 독립선언 잠정중단

스페인과 정면 충돌 피하고 협상 나선 듯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 중앙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 절차의 잠정중단을 의회에 제안했다.

카탈루냐가 강경하게 분리독립 불가를 고수하는 스페인을 상대로 ‘일단 후퇴’를 선언한 뒤 협상을 통해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카를레스 푸지데론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10일(현지시간) 저녁 자치의 회 연설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나는 카탈루냐 독립 공화국을 선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독립선언 요건이 충족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는 43%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90.18%가 독립에 찬성했다고 자치정부가 공식 집계했으나, 스페인 정부는 애초에 주민투표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푸지데론 수반은 이어 카탈루냐와 스페인 간의 갈등 해소와 관계 재정립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회에 독립 선언절차를 몇 주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스페인-카탈루냐 갈등의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중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푸지데론 수반의 이런 연설 내용은 주

민투표를 통해 독립국이 될 자격을 얻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대신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카탈루냐 자치의 회 이날 연설에서 푸지데론 수반이 대내외에 카탈루냐의 독립을 선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주말 사이 상징적 수준에서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카탈루냐가 스페인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반면, 푸지데론 수반이 지난주 초까지 ‘분리독립 찬성 의견이 승리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 48시간 이내에 독립을 선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스페인에 대한 일종의 ‘투항’으로 볼 수도 있다.

그동안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정부가 일반적으로 분리독립을 선언할 경우 헌법 155조를 발동해 자치권 몰수와 지방정부 해산 등 초강경책을 쓸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불복종’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측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잠재졌으나, 이날 ‘독립선언 잠정중단’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h3>상무지구 상가 매매</h3> <p>시청 1분. 금융가대rob인 현대아파트 후문 앞</p> <p>8층 중 4층 (45평) 내부깨끗 / 주차 가능</p> <p>보 2천 월 100만 → 매가 1억9천 (용7천)</p> <p>직매 010-6670-9800</p>	<h3>수기동 상가 매매</h3> <p>천변로 전망최고</p> <p>20층 중 6층</p> <p>45평 ( 고급시설 ) 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p> <p>보 1천 월 60만</p> <p>매가 9천8백 (용5천)</p> <p>직매 010-6670-9800</p>	<h3>경매 (주)대신경매</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농성동 (상가건물) 토지 42평 건물 51평 농성역/돌고개역 3분 (코너) 자동차정비비 운영중 감정가 2억 6천 → 최저가 2억 6천</li> <li>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li> <li>남구 봉선동 (2층 상가건물) 토지 690평 건물 430평 감정가 46억 → 최저가 46억</li> <li>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li> <li>동구 충정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li> <li>광산구 오선동 (공방) 토지 2,546평 건물 1,738평 감정가 90억 → 최저가 50억</li> </ol> <p>010-7384-7800</p>	<h3>경매교육</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li> <li>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li> <li>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인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li> </ol> <p>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p> <p>(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p> <p>010-6670-9800</p>
--	---	---	--